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SBS 뉴스 10 2015 US 여자오픈 FR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머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총총총 55 바른말 고운말	1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재)	00 그린실버 고양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추적
12	00 KBS 뉴스12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1대100(재)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00 KBC 열린토론회(재)
2	0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특별생방송 웰컴 투 광주 3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여기는 광주 (탁구, 리듬체조)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생정보 스페셜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크 현장 고양이 보인다
3 00 직인직설		45 후토스 읽어버린 숲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40 문화 사색	00 SBS 뉴스 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20 쾌도난마		10 아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지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꾸러기탐구생활스페셜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05 시사기획 창 (외국 투자 기업의 그늘)	10 검증고수4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6	00 6시 내 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행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 <단팹>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00 월화 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어부의 만찬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40 총격 실화극 <싸인>(재)	30 우리 생애 마지막 여름	30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실컷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왼쪽부터 이연복·홍석천·박준우  
▶영화 '심야식당' 푸드스타일리스트 이지마 나미

영화, 음식에 빠지다

음식영화로만 라인업 채운 음식영화제 열려  
이연복·홍석천·박준우 관객과 솔직 토크  
이지마 나미 "송강호 영화에 참여하고파"

"첫 번째 꿈은 지금처럼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 두 번째는 전 세계의 가정요리를 접하고 배우 이 분야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으로는 만두, 갈국수, 콩국수를 좋아해요. 저한테 한국 가정식을 가르쳐주세요 분 없나요? 그리고 송강호 씨가 나오는 영화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해 보는 게 꿈입니다!"(웃음)

‘룩방(요리방송) 전성시대’, 극장가에도 음식이 풍년이다. 다양한 음식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데 이어 음식영화로만 라인업을 채운 음식영화제도 잇따라 열린다. 그중 먼저 막을 올린 제1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 일본의 이름난 푸드스타일리스트와 레스토랑 밖에서 전성기를 누리는 스타 셰프들이 찾아와 ‘맛있는 토크’에 나섰다.  
◇영화 ‘심야식당’ 푸드스타일리스트 이지마 나미=만화로 시작돼 TV드라마에 이어 영화로도 만들어진 일본 작품 ‘심야식당’은 국내에서도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한 작품이다. 그중에서 영화 ‘심야식당’은 국내 극장에서만 관객 10만명을 돌파했다.

◇이연복·홍석천·박준우 셰프=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셰프 이연복, 레스토랑을 차려 외식업계 입문 13년차가 된 방송인 홍석천도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의 진행으로 ‘맛있는 토크’에 나섰다. 특히 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은 홍석천은 행사장을 꼭 채운 관객들에게 유쾌한 입담으로 요리 철학과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음식이 주인공인 이 작품의 음식 스타일링을 맡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카모메 식당’, ‘남극의 셰프’ 등도 맡았던 이지마 나미이다.  
이지마는 10일 오후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이 영화 상영 후 영화제가 마련한 관객과의 대화 자리인 ‘맛있는 토크’를 찾았다.

그는 이태원 외식업계 3대 인물에 홍석천과 역시 최근 스타 셰프로 떠오른 미카엘 아쉬미노프가 들어간다는 진행자 박준우의 말에 “임대 계약 문제로 이태원 음식점을 닫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미카엘이 들어온다고 한다”고 말해 객석에서 폭소가 터졌다.  
“외식업을 시작할 때는 셰프가 아니었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공간, 내가 대접한 음식을 상대가 맛있게 먹는 행복, 부담없는 가격 등의 기준으로 시작했어요. 점점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이 괴롭지만, 음식을 대접하는 자기만족은 여전합니다.”

화려한 정찬이 아니라 집에서 차려 먹는 밥 같은 담백한 요리를 선보여온 이지마는 음식의 의미를 “누구나 맛볼 수 있는 소박한 행복”으로 여긴다고 했다.  
“아침에 준비해서 점심때 내놓아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것, 소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음식의 의미겠지요. 어렸을 때는 양념을 많이 쓴 음식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재료의 첫맛을 살리는 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관객이 ‘맛있어 보이게 하는 것’과 ‘맛을 잘 내는 것’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지 묻자 그는 “맛을 잘 내는 쪽”이라고 답했다.  
그는 ‘심야식당’ 촬영 때 밥만 1인분을 만들려고 밥을 10번 짓기도 했다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인내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어 무엇이나 하는 한 관객의 물음에 배우 송강호의 이름을 꺼내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중화요리 전문인 이연복은 요리할 때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요리할 때는 마음이 진자 중요해요. 주위 환경이 짜증날 때와 마음이 즐거울 때 한 요리는 맛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정말 좋은 음식이 나오니까.”  
객석에서는 손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힐링 푸드’가 있는지 질문도 나왔다.  
이연복과 홍석천 모두 “누군가를 위해 만들지, 나 자신을 위한 요리를 특별히 하지는 않는다”며 겸연쩍게 웃었고 박준우는 ‘샌드위치’라는 소박한 메뉴를 꼽았다.  
“매장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재료가 많으니 삼겹살 부다가 넣고 해산물을 넣기도 하는데... 손님을 위해서는 머리 써서 음식을 만드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냥 사먹습니다.”(이연복)  
“스트레스받은 날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요. 그냥 식빵 사이에 재료 넣으면 그 빵이 입천장에 붙으면 안도감이 들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박준우)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크쇼 부모-고수다	14:45 미연미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시계마을 타기톡!	(문화유산 코리아)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출동! 슈퍼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원색의 대자연 속으로, 잠비아)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1:30 한국기행 (비밀의 숲)
08:00 덩동덩 우지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1:50 EBS 다크프라이
08:20 두다다공(재)	13:10 초등 1학년 여름방학생활	17:00 Why - 최고! 호기심딱지	(황금투구의 전설, 조기)
08:35 Why - 최고! 호기심딱지	13:30 초등 2학년 여름방학생활	17:15 바오밥씨의 파오파오	22:45 달리자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초등 3학년 여름방학생활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씨의 파오파오(재)	14:10 배움 너머	17:45 꼬마버스 타요	(아시아 맛기행)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B형>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1:40 " <문학-알짜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재)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2:30 " <미적분1>	15:40 " <미적분1>(재)	09:00 출제문 수확 EBS MATH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9:10 중학단기특강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1>	17:20 " 평가문제 <미적분1>(재)	(영어 1 독해 240제)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5:00 뉴턴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09:50 " <영어 1 독해 240제>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6:00 " <생명과학>	19:30 " <영어>	10:30 EBS TV 중학 <역사 1>	18:00 중학단기특강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1:10 중학단기특강	(영어3 독해240제)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능 <국어 A>	(영어2 독해240제)	18:40 " <수학3 300제>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11:50 " <수학2 300제>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09:20 " <심주석의 수학>	21:50 " <문학A형>(재)	12:30 실전취업가이드	20:00 EBS 기획특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A>	22:30 최재현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10 등업산공 <수학1(1상)>	20:50 EBS 기획시리즈
11:00 " <수학>	23:10 인터넷수능<영어독해연습-종합>	13:50 " <수학1(1상)>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2:15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재)	23:50 지식채널e	14:30 " <수학2(2상)>	22:00 등업산공 <과학2(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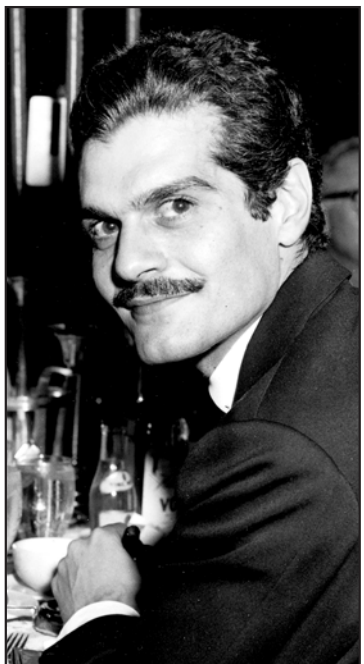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3일(음 5월 28일 庚寅)

子	48년생 목재 달성은 하겠지만 실효성이 약해질 수도 있느니라. 60년생 반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모래 위에 쌓아 놓은 성곽에 불과하다. 84년생 길은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4, 40	午	42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54년생 무탈 할 것이니 노과심을 버려도 된다. 66년생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이가 보인다. 78년생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행운의 숫자 : 37, 38
丑	49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의 여신이 길을 안내하고 있는 구도이다. 61년생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여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73년생 불명확하므로 지켜보아야겠다. 85년생 돈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득을 잡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62	未	43년생 유색된 이면에는 검은 부분이 숨겨져 있느니라. 55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니 절대로 방심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67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리라. 79년생 본 뜻대로 해도 아무렇지 않다. 행운의 숫자 : 74, 44
寅	38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이다. 50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62년생 거북이 등에서 털을 뜯으려는 격이다. 74년생 식견이 풍부하면 이와 함께 하자. 86년생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0, 02	申	44년생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느니라. 56년생 입에 발린 덕담보다 속 깊은 충고에 귀 기울여라. 68년생 인식한 예감과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80년생 형평성 있는 시각이 현명한 판단을 낳으리라. 행운의 숫자 : 59, 25
卯	39년생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51년생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63년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자가 될 수밖에 없다. 75년생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87년생 치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46, 31	酉	45년생 넉넉하게 접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7년생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별도로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느니라. 69년생 희한한 날이다. 81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행운의 숫자 : 50, 64
辰	40년생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함이 순리이다. 52년생 작정하고 담배야 겨우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판국이다. 64년생 생 기회 갈목상대할 만하다. 76년생 스스로 따라 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52, 04	戌	46년생 하찮다고 여겼던 것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58년생 과생되는 형세까지 다각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다. 70년생 분위기의 조성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82년생 비단 옷 위에 꽃을 다한 격이로다. 행운의 숫자 : 33, 69
巳	41년생 마무리를 잘 마무리한 헛수고만 할 뿐이다. 53년생 직책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65년생 가부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행운의 숫자 : 23, 30	亥	47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59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71년생 결과는 대동사 할 것 이니 형편에 따르라. 83년생 터무니없는 소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85, 72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닥터 지바고’ 오마 샤리프

알츠하이머 투병중 83세로 별세



영화 ‘닥터 지바고’로 유명한 이집트 출신 영화배우 오마 샤리프(사진)가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고인의 에이전트 측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샤리프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던 그는 지난 한달간 카이로의 한 대형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오마 샤리프는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닥터 지바고’로 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전설적인 배우다. 1932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시리아-레바논계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이국적이면서도 수려한 용모와 선 굵은 연기력, 뛰어난 외국어 구사력을 바탕으로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는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이집트 빅토리아대와 카이로대에서 수학한 샤리프는 영국 런던의 연극학교인 왕립연극학원(RADA)에서 공부한 뒤 1950년대 초반 이집트 영화계에서 본격적으로 직업 배우 경력을 시작했다. 여러 이집트 영화에 출연하며 자국 내에서 인지도 높은 샤리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은 데이비드 린 감독의 걸작 ‘아라비아의 로렌스’(1962년)였다.  
이 영화에서 T.E. 로렌스(피터 오를 분)와 동지가 되는 아랍 부족장 샤리프 알리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오스카와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거머쥘 때 단숨에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다.

샤리프는 3년 뒤인 1965년 같은 감독의 명작 ‘닥터 지바고’에서 주연을 맡아 명연기를 펼친 전 세계 영화팬들을 매료시켰다. 그는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샤리프는 모두 8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찰리즈 칸(칭기즈칸, 1965), 나치 장교(바르샤바의 밤, 1967), 체 게바라(체, 1969), 유대인 도박꾼(화니컬, 1968) 등 다양한 역할을 연기했다.  
그러나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닥터 지바고’를 능가하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03년 한 인터뷰에서 “도박 빚을 갚으려고 명칭하고 쓰레기 같은 영화에 여러 차례 출연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샤리프는 전 부인인 이집트 유명 여배우 파넬 하마미와의 사이에 외아들 타레크 엘샤리프를 두고 있다. 모태 기독교도였던 그는 하마미와 결혼하기 위해 1955년 이슬람교로 개종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